

Issue Paper 2020-0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독일의 직업교육훈련 현황과 대응 방안

유진영

2020. 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독일의 직업교육훈련 현황과 대응 방안

유진영¹⁾

< 목 차 >

I. 들어가며	1
II. 독일의 직업교육훈련 현황	2
III. 코로나19 확산 이후 독일의 직업교육훈련 운영 대응방안	4
IV. 나가며	13
참고문헌	17

개요

코로나19²⁾ 확산위기는 현재 독일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독일정부는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직업교육 및 훈련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연방정부와의 협의 하에 상설주교육부장관회의(KMK)에서 수차례의 결정사안이 발표되었고 「감염방지법(IFSG)」 및 「공공생활 제한에 대한 결정」(2020.4.15) 지침에 따라 학교와 산업체 등에서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안전조치 및 규정이 마련되고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독일 직업교육훈련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주제어: 독일, 직업교육훈련, 코로나19, 상설주교육부장관회의(KMK), 감염방지법(IFSG)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E-mail: jinyoung_yu@krivet.re.kr)

2) 독일에서는 공식명칭으로 'COVID-19 (Coronavirus SARS-CoV-2)'라고 지칭되지만 본고에서는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코로나19'로 통칭하였음.

I. 들어가며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은 독일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의 교육 담당자는 코로나19 확산 시작부터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학교와 산업계에 위기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 독일의 16개 주정부에서는 2020년 3월 16일부터 일제히 전체 학교에 대한 휴교를 발표하였고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을 제공했다. 일반교육 분야와 마찬가지로 직업교육훈련 분야도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운영차질이 없도록 대응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독일의 직업교육은 독일경제를 이끌어가는 성공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청소년의 60-70%가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2018년 직업교육에 참여한 인원은 722,684명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들 중 3분의 2이상인 494,539명(68.4%)은 직업교육훈련법(Berufsbildungsgesetz, BBiG) 또는 수공업규정(Handwerksordnung, HWK)에 따라 이원화 직업교육(Dual System)을 선택했다. 이 수치는 2017년과 대비하여 8,111명(1.7%)이 증가한 것이다. 178,718명(24.7%)의 학생은 보건·사회 분야 등에서 학교 기반 직업 훈련을 시작했으며(전년대비 3,707명(2.1%)증가), 49,427명(6.8%)의 학생이 기타분야에서 학교기반 직업교육에 참여하였다(전년대비 1,547명(3.0%)감소)³⁾.

이러한 독일의 직업교육은 일반교육과 달리 산업체에서 현장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는 이원화된 특성 때문에 직업교육 관련 기관들에서는 교육 운영의 차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수공업협회(Handwerkskammer, HWK), 상공회의소(Industrie- und Handelskammer, IHK)는 훈련과 자격시험에 대한 입장을 신속히 내놓고 있으며, 독일노동조합총연맹(Deutsche Gewerkschaftsbund, DGB)에서도 직업교육훈련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재정보조를 요구하고 있다. 다행히 독일 정부는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여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생을 위한 규정과 매뉴얼을 각 지역별로 제공하였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운영과 학생의 안전 확보의 입장에서 전개되는 독일 정부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 대응 방안을 수립함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고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독일의 주정부 및 각계 입장에서의 직업교육 대응방안 및 규정들을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3) 출처: “독일연방직업교육연구소(BIBB)” 2020년 5월 1일 접속, <https://www.bibb.de/de/121454.php>

II. 독일의 직업교육 운영 현황

독일 직업교육의 핵심적 요소는 이원화제도와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직업학교로 볼 수 있다. 이원화제도는 직업교육훈련에서 2개의 학습장소를 가르치는 말로서, 즉 산업체(Betrieb)와 직업학교(Berufsschule)가 직업훈련에 관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 하에 서로 협동하고 있는 제도를 뜻한다. 직업학교의 학습장소는 교실수업과 작업실 및 실험실이며, 산업체는 일터와 교수작업실 및 실험실, 기업내 수업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원화제도는 철저한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는데 산업체는 직업훈련과 관련한 현장중심의 영역을 담당하며 직업학교는 전공과 관련한 이론학습을 중심으로 제공한다. 특히 이원화된 직업교육은 국가적으로 통일된 체계를 갖추고 내용적으로 학교와 산업체간에 구분이 확립되어 있으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관련 주체들의 역할이 극대화되어 있다(김은숙, 2012; 김기홍, 2018, p.52).

이원화 제도를 뒷받침하는 산업체훈련에 대한 대표적인 법적 근거로 직업교육훈련법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 인정받은 훈련 직종에서 교육과정 기준(표준화), 시험의 대상과 과정에 대한 기준(표준화), 훈련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훈련장소와 훈련인원의 적합성에 대한 요구 사항, 훈련감독과 관련하여 '관련책임 부서'의 과제 등이 명시되어 있다. 수공업직종에서는 직업훈련을 위한 수공업규정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수공업분야의 훈련생들의 권리와 의무, 직업훈련계약, 공인된 훈련직종의 제도 및 담당 기관으로서 수공업협회의 과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론적 학습장소인 직업학교에 대한 법은 문화고권(Kulturhoheit)⁴⁾의 원칙하에 각 주정부의 학교법(Schulgesetz)에 근거한다. 학교법에는 직업 훈련에 대한 중요한 규정으로 직업학교 의무제가 포함되며 훈련생들은 사업체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직업학교를 다녀야 한다.

이러한 양 법적 근거가 중요한 이유는 산업체의 훈련내용과 직업학교의 교과 과정이 서로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직업훈련법은 직업학교의 직업관련 학습내용이 산업체 훈련에서의 졸업시험 과목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짐으로서 직업학교와 산업체에서의 이원화된 직업훈련교육은 탄탄한 기반을 가진다(이동임, 2014). 기업체 내에서의 교육은 일

4) 독일에서 문화고권(Kulturhoheit)이란 독일 기본법 제 30조 및 입법관할권에 관한 제 70조 이하에 따라 문화 내지 학교에 관한 입법 및 행정은 그 관할권이 주정부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시우, 2007, p.27)

주일에 3-4일간, 또는 각 주별 규정 및 교육직종, 교육횟수에 따라 1-2일간 이루어지며 이는 직업학교 이수일로 정해진다. 이 수업은 수공업조합과 협회의 작업장에서 실시되며 공동훈련센터에서도 실시된다. 공동훈련센터에서 실시되는 교과과정은 다양한 기업체에서 실시된 전문 과정에서 부족한 교육적 손실부분을 채워주며 교과과정은 1년에 3-4주간 지속된다.

직업교육 단계별로 학생들은 교육성과를 증명해야만 하며 중간단계에서는 중간시험, 마지막 단계에서는 졸업시험이 실시되며 졸업 시에는 직업학교 졸업증명서와 전문공 또는 숙련공(Geselle)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시험은 수공업협회와 상공업협회(상공회의소)가 임명한 시험위원회에 의해 감독되며 훈련생은 훈련기업을 통해서 시험을 응시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상공회의소에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대표, 교사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가 시험과제에 대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시험의 최대 장점은 전국적으로 모든 훈련생들이 동시에 동일한 과제의 시험을 치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시험이 객관적으로 실시되고 시험결과가 연방별로 비교가능하다. 시험의 결과는 전 지역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응시자 뿐 아니라 교육기관은 그 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김기홍, 2018; 유진영, 2019).

그 외에 연방직업교육연구소(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BIBB)와 중앙위원회가 자격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와 협조하여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처는 연방 경제기술부와 연방 교육연구부이다. 그리고 이 중앙위원회는 독일 자격과정 및 기업훈련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문기관으로 활동한다. 여기에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정부가 동수로 참여하는데,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주정부도 참여하고 있다(이동임, 2014). 주정부와 상설주교육장관회의(Kultusministerkonferenz, KMK)는 직업학교 운영에 있어서 이론과 실습에 관여하고 있다(유진영, 2017).

Ⅲ. 코로나19 확산 이후 독일의 직업교육훈련 운영 대응방안

1. 학교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

독일은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역할이 명확하고, 주정부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고 있다(김기홍, 2018). 독일에서 학교업무는 주정부의 소관이며 모든 주정부는 교육 문제에 관해서는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독일의 연방, 주 및 지방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의 위기에 직면하여 경제적, 문화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⁵⁾ 이에 따라 주정부의 교육을 결정하는 기구인 상설주교육부장관회의(KMK)에서는 2020년 3월 13일에 최고위직 회담을 통해 교육과 문화 전반의 대응방안에 신속하게 합의했다. 이 합의 이후 3월 16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위기로 인해 학교휴교에 들어갔다(2020년 4월 13일자 자료)⁶⁾. 당시 연방과 주정부는 부활절 휴가 이후에 고등학교부터 학교를 개학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4월 15일을 전후하여 위기감 확산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각 주별 학교재개가 연기되었다.

<표 1> 독일 연방주별 휴교기간

연방 주	4월 15일 이전	4월 15일 발표 이후 (5월 8일 시점)
바이에른	4월 19일까지 휴교	4월 27일부터 순차적 재개
바덴-뷔르템베르크	4월 19일까지 휴교	5월 4일부터 순차적 재개
베를린	4월 17일까지 휴교	10학년 수업은 4월 27일에 재개 5월 4일 졸업반 학생 수업 재개
브란덴부르크	4월 17일까지 휴교	4월 27일부터 순차적 재개
브레멘	4월 14일까지 휴교	4월 27일부터 순차적 재개
함부르크	4월 19일까지 휴교	5월 25일까지 순차적 재개
헤센	4월 19일까지 휴교	4월 27일부터 순차적 수업 재개
메클렌부르크-포포메른	4월 19일까지 휴교	5월 14일부터 수업재개

5) 출처: “독일 상설주교육부장관회의(KMK)” 2020년 4월 29일 접속, <https://www.kmk.org/presse/pressearchiv/mitteilung/kulturpolitisches-spitzengespraech-laender-bund-und-kommunale-spitzenverbaende-einigen-sich-auf-hilfe.html>

6) 출처: “독일주간시사잡지FOCUS” 2020년 4월 13일 접속, https://www.focus.de/familie/eltern/schulenausfall-wegen-der-krise-schulen-koennten-nach-ostern-fuer-aeltere-schueler-wieder-oeffnen_id_11704839.html

니더작센	4월 19일까지 휴교 아비투어준비생은 예외.	4월 27일 졸업반 학생 수업재개 여름방학 전에 재개 예정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4월 19일까지 휴교	졸업반 학생 4월 20일 수업재개 4월 27일부터 순차적 재개
라인란트-팔츠	4월 19일까지 휴교	4월 27일 수업재개
자를란트	4월 26일까지 휴교	5월 4일부터 수업재개
작센	4월 19일까지 휴교	4월 20일부터 순차적 재개
작센-안할트	4월 19일까지 휴교	4월 23일부터 순차적 수업재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4월 19일까지 휴교	5월 4일까지 휴교
튀링엔	4월 19일까지 휴교	4월 27일부터 수업재개

(출처: “독일주간시사잡지FOCUS” 2020년 4월 13일, 4월 16일, 5월 11일 접속하여 정리함, https://www.focus.de/familie/eltern/schulausfall-wegen-der-krise-schulen-koennten-nach-ostern-fuer-aeltere-schueler-wieder-oeffnen_id_11704839.html)

2020년 4월 16일 상설주교육부장관회의(KMK)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학교재개와 관련하여 다시 온라인회의를 소집하였고 전국적으로 학교가 5월 4일에 서서히 재개될 것을 발표하였다. 이때 우선적으로 올해 졸업반 학생들의 수업이 먼저 시작될 것이라고 하였다.⁷⁾ 따라서 모든 접촉 제한은 5월 3일까지 연장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와 학교, 경제분야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2020년 4월 15일 연방총리와 주정부총리한 합의한 「공공생활 제한에 대한 결정」(Beschränkungen des öffentlichen Lebens zur Eindämmung der COVID19-Epidemie)⁸⁾에 따라 학교수업은 "조심히 그리고 단계적으로 재개될 예정"으로 "일반학교 및 직업학교에서 다음 학년도 시험을 치르는 졸업반 및 자격반 학생들을 우선으로 하며, 초등학교는 졸업반 학생들을 우선으로 한다"고 적용되었다.⁹⁾

각 주별 교육부 장관은 4월 말까지 위생 조치, 스쿨버스 운영, 휴식 시간 및 그룹 배포에 대한 계획을 발표해야 했고 졸업반 학생들의 시험 및 시험 준비는 5월 초까지 학교의 엄격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노르트

7) 출처: “독일 상설주정부교육부장관회의” 2020년 4월 17일 접속, <https://www.kmk.org/presse/pressearchiv/mitteilung/hubig-kmk-bereitet-schuloeffnungen-vor.html>

8) 출처: “독일연방정부”, 2020년 5월 3일 접속, <https://www.bundesregierung.de/resource/blob/975226/1744226/bcf47533c99dc84216eded8772e803d4/2020-04-15-beschluss-bund-laender-data.pdf?download=1>

9) 출처: “독일상공회의소” 2020년 5월 3일 검색, <https://www.dihk.de/de/aktuelles-und-presse/presseinformationen/dihk-berufsschulen-und-bildungsstaetten-rasch-wieder-oeffnen-23176>

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경우는 학교 운영은 4월 20일부터 재개를 계획하였다.

그 후 다시 4월 28일에 발표된 상설주교육부장관회의(KMK)에서는 “학교에서 수업재개를 위한 기본구상(Rahmenkonzept)”을 결정하였다. 여기에는 학교에서의 위생, 학생지원 및 수업 조직을 위한 전국적인 기본구상 요건이 들어있고 디지털 학습의 지속적인 중요성에 대한 의견이 포함되었다. 상설주교육부장관회의(KMK)회장이자 라인란트 팔츠 주 교육부장관인 후비히 박사(Dr. Stefanie Hubig)는 “(16개 주교육부장관은) 현재 상황에서 여름 방학 전에 더 이상 정규 수업이 없을 것이라는 데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이는 특히 학교의 위생 요건, 학습 그룹 축소 및 안전한 거리 유지의 필요성 때문이다”¹⁰⁾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코로나19확산에 대비하여 여름 방학 전까지 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는 있으나 가정에서의 수업과 교실에서의 학습은 교대로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학년별, 학습 그룹별로 점진적으로 학교를 개방하고 교육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지원이 제공되어야만 한다고 발표하였다.¹¹⁾

특히, 직업교육훈련에 있어서는 직업훈련생의 입장에서 알아야 할 일반적인 대응방안 매뉴얼이 다음과 같이 마련되었다. 연방직업교육연구소(BIBB), 도제훈련 관련홈페이지 등에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개별 주정부별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해당 주정부 정보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2> 학생의 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Q & A

번호	질문	답변
1	코로나19 위기에도 도제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네, 코로나 위기에도 도제과정을 신청할 수도 있음.
2	코로나19는 도제학생의 기업체훈련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그리고 직업학교가 휴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직업학교가 일시적으로 휴교하더라도 도제학생은 훈련 회사에 출석해야 함. 또한 직업학교 휴교 시 학교에서 과제를 제시할 경우, 훈련회사는 도제학생에게 해당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함.
3	도제훈련생은 감염을 두려워하여 직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훈련생은 직장에서 또는 도중에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있다는 이유로 일을 거부해서는 안 됨.

10) 출처: “독일 상설주정부교육부장관회의” 2020년 5월 2일 접속, <https://www.kmk.org/presse/pressearchiv/mitteilung/hubig-kmk-uebermittelt-rahmenkonzept-an-regierungschefs-gesundheitsschutz-der-schulgemeinschaft-st.html>

11) 출처: “독일 상설주정부교육부장관회의” 2020년 5월 2일 접속, <https://www.kmk.org/presse/pressearchiv/mitteilung/hubig-kmk-uebermittelt-rahmenkonzept-an-regierungschefs-gesundheitsschutz-der-schulgemeinschaft-st.html>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독일의 직업교육훈련 현황과 대응 방안

4	학생이 코로나19에 걸리면 해고 될 수 있습니까?	학생이 코로나에 감염되었거나 격리대상자로서 검역소에 있어야하는 경우 해고해서는 안 됨
5	회사는 도제학생(훈련생)에게 단축 근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도제학생(훈련생)은 단축 근무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6	도제자격시험이 연기되면 직업교육훈련 시간이 연장됩니까?	그렇지 않음. 직업교육훈련 시간은 연장되지 않음.
7	훈련기업 결근 시 최종 도제자격시험에 영향을 줍니까?	현재 상황에서 답하기가 약간 어려움. 상공회의소(IHK)는 학생의 직업교육훈련의 부재를 파악해서 결석이 전체 시간의 10%를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결정할 것임.
8	훈련회사가 파산에 직면해 있는 경우, 훈련생이 걱정해야 하거나 이것이 훈련생에게 영향을 줍니까?	아님.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임박한 파산 또는 파산 절차의 개시는 훈련 계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9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직업교육훈련 시작이 연기됩니까?	2020년 훈련의 시작은 아직 이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음.(2020년 4월 28일자 기준) ¹²⁾
10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생이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전염병이 발생하면 관할당국은 감염 방지법(IFSG)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검역을 시행할 수 있음. 도제훈련생 및 기타 직원에게 업무 금지가 요청될 수 있음.

(출처: "아우스빌둥", 2020년 4월 14일 접속 및 요약정리, <https://www.ausbildung.de/ratgeber/corona/>)

위의 <표 2>와 같이 직업교육훈련생의 입장에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던질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공되고 있다. 주요내용을 정리하자면, 우선 코로나시기에도 도제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다. 통상적인 지원면접은 아마도 몇 주 안에 열리지 않지만 온라인 신청 및 비디오 면접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회사들이 비디오 면접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뷰는 전화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지원프로그램 안내서를 참고하여 관련된 모든 정보를 찾고 이력서, 지원서쓰기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직업교육훈련생이 코로나 때문에 위험을 느끼는 경우가 있지만, 학생은 실습생으로서 직장에서 감염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회사훈련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고용주는 훈련생에 대한 관리 의무를 준수해야하며 가정에서 학생이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은 훈련교사에게 직접 상의하

12) 출처: "아우스빌둥", 2020년 5월 1일 접속, <https://www.ausbildung.de/ratgeber/corona/#infos-unternehmen>

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문의할 수 있다. 셋째, 학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격리대상자로서 검역소에 있어야하는 경우 해고되지 않으며, 만약 회사가 장기간 폐쇄되어 실습교육 자리를 잃는 경우에는 훈련교사는 적절한 고용기관과 협력하여 학생을 위해 다른 훈련 회사를 찾도록 애써야 한다. 넷째, 도제학생(훈련생)은 단축 근무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훈련담당 회사는 학생의 교육을 계속 가능하도록 하고 교육계획을 변경하거나 다른 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단축근무를 요구할 경우, 훈련생에게 최소 6주 이상의 훈련금이 전액 지불하며, 이는 계약 유형에 따라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6주 후 단기근로 혜택은 담당 고용기관을 통해 청구된다. 다섯째, 도제자격 시험이 연기되더라도 직업교육훈련 시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도제훈련은 계약상 합의된 훈련으로 완료된 것으로 이것은 아직 최종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학생 스스로가 불안하여 시험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상공회의소(IHK)에 교육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전제 조건은 직업교육훈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시간이 연장되어야 하며, 실제로 회사나 직업학교에서 코로나19 때문에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족한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염병이 발생하면 관할 당국은 감염방지법(Infektionsschutzgesetz, IFSG)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검역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제훈련생 및 기타 직원에게 업무 금지가 요청될 수 있다. 이때에도 도제훈련생 및 직원은 이로 인한 수입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보상은 고용주가 최대 6주 동안 지불하며 해당 금액을 관할 기관으로부터 **상환** 받을 권리가 있다. 감염방지법은 관할 보건당국이 이러한 보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독일 직업교육 관련 사회적 파트너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1) 상공회의소(IHK) 입장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상공회의소(IHK)는 2020년 여름 시즌 시험으로 4월과 5월에 예정된 최종 도제자격시험을 연기하였다. 따라서 상공회의소 주최의 계속교육(Weiterbildung) 시험은 5월까지 실시되지 않으며 시험일정은 6월에서 8월 사이로 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도제시험은 2020년 6월 16일부터 19일 기간으로 재조정될 예정이며, 6월 16-17일에 산업기술시험과 6월 18-19일의 상업부문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¹³⁾ 이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실시되는 상공회의소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직업학교 및 훈련기관이 신속히 재개될 필요가 있다. 상공회의소의 시험위원회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험일정에 동의하였고 적절한 위생 및 보호 조치에 따라 6월에 상공회의소 시험을 재개하는 것은 「공공생활 제한에 대한 결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¹⁴⁾

2) 수공업협회(HWK)

독일 수공업협회(HWK)측도 직업교육 훈련과 관련하여 직업교육훈련 회사가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많은 회사들은 존립을 위협당하는 상황에 처해있으므로 경제가 다시 시작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직원과 훈련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수공업 관련 기업의 대략 45%가 올해 가을부터 시작할 직업교육연도에 전년도보다 더 많은 연수생을 고용할 계획을 가졌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기업의 25%가 불확실성으로 인해 훈련 약속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¹⁵⁾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생의 약 3명중 1명은 수공업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정도로 독일에서 수공업 기술은 숙련된 근로자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 수공업협회는 높은 수준의 훈련 약속을 유지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숙련된 근로자의 공급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훈련과 자격을 위기 전체에 걸쳐 안정화시켜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수공업협회는 “직업훈련은 숙련된 근로자를 확보하는 핵심열쇠이다. 미래의 숙련인력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직업훈련 회사에 일회성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이 훈련 보조금은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 또는 최소 훈련 수당의 75%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¹⁶⁾

13) 출처: “아우스빌둥플러스”, 2020년 5월 1일 접속, <https://www.aubi-plus.de/ausbildung/corona/>

14) 출처: “독일상공회의소”, 2020년 5월 3일 접속, <https://www.dihk.de/de/aktuelles-und-presse/presseinformationen/dihk-berufsschulen-und-bildungsstaetten-rasch-wieder-oeffnen-23176>

15) 출처: “독일타게스샤우”, 2020년 5월 1일 접속, <https://www.tagesschau.de/investigativ/swr/umfrage-handwerk-101.html>

16) 출처: “독일수공업협회”(4월 30일자), 2020년 5월 3일 접속, <https://www.zdh.de//presse/interviews-statements/wir-muessen-alles-tun-um-ausbildungsbetriebe-ueber-wasser-zu-halten/>

3)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의 입장(2020.4.21.일자)

독일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인 독일노동조합총연맹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단축근무, 회사 폐쇄, 경제 위기로 인한 2021년 수만 명의 직업교육 훈련생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연방 정부, 주정부 및 고용주와 함께 훈련생을 위한 보호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직업학교가 폐쇄되고 회사는 단축근무를 하거나 영업을 멈추는 등 직업훈련이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위기 정도를 보여주는 두 가지 수치는 430,000개 기업만이 현재 독일에서 직업훈련생을 교육하고 있는데, 이미 4월 중순에 그 배에 달하는 725,000개의 기업이 단축 노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¹⁷⁾ 이는 특히 5월 4일부터 내년 2021년 직업훈련, 즉 8월 1일 또는 9월 1일에 시작되는 내년 직업교육훈련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기 때문에 그 여파가 더욱 클 것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훈련 계약이 급격히 감소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러한 침체를 그대로 볼 수만 없기 때문에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 경제부 장관이 연방 정부, 주정부, 노동조합 및 고용주가 모여 직업훈련 및 계속교육을 위한 최고위급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조 측은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기회를 빼앗기게 하고 싶지 않다면 이러한 파트너들이 공동으로 "직업훈련을 위한 보호막"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¹⁸⁾

3. 주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상황

1) 니더작센 주

독일 북서부에 위치한 니더작센 주에서는 인문계고등학교 졸업시험인 아비투어(Abitur) 시험이 약 3주간 연기될 예정이며 필기시험의 첫 날은 2020년 5월 11일(역사 과목)이며 마지막 시험은 2020년 5월 30일로(라틴어과목) 계획되어 있다. 응급돌봄은 특정 조건하에서 최대 8학년까지 실시되며 이 주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경찰, 사법부, 응급 서비스, 소방대 및 민사 보호와 같은 의료, 건강, 의학 및 공공 보안 분야의 직원 자녀에게 적용된다. 외국의 학교 및 학생 방문 등을 비롯한 학교 여행은 여름 방학까지 중지된다.

17) 출처: "이우스빌등관련", 2020년 5월 1일 접속, <https://www.jmwiarda.de/2020/04/21/denkt-an-die-azubis>

18) 출처: "이우스빌등관련", 2020년 5월 1일 접속, <https://www.jmwiarda.de/2020/04/21/denkt-an-die-azubis>

2) 자를란트 주

프랑스와 인접하고 있는 자를란트 주의 학교와 보육센터는 3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휴교령을 계획했으나 연장하여 5월 4일 이후 수업재개를 실시하였다. 휴교기간동안에 응급돌봄은 지속적으로 실시되었고 가능하다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접촉 없이 가능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모든 졸업시험 (중등 I단계 학교 졸업 및, 중등 II단계인 고등학교 졸업, 직업 전문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학의 여름 학기는 5월 4일에야 시작될 계획이다.¹⁹⁾

3) 라인란트 팔츠 주

독일 남부의 라인란트 팔츠 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G8 김나지움, 직업계 고등학교, 단과대학 및 저녁 고등학교는 4월 30일에 재개하며 5월 20일까지 서면 아비투어(Abitur)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직업학교 교육과정의 최종시험(직업상급학교(BOS)²⁰⁾ I단계, 이원화 직업학교, 직업전문상위학교 전문상급학교(FOS)²¹⁾, 전문대학교 입학자격 및 직업상급학교 II 및 고등직업전문학교(HBF)²²⁾의 대학 입학시험 포함)은 중앙에서 예정된 시험 기간(2020년 5월 11일 초에 필기시험)에 실시할 예정이다. 2020년 6월 15일부터 가장 빠른 구술 시험이 실시될 계획이며, 특수교육학교는 휴교하지 않고 교사 및 기타 교직원에게는 교육의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이 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질문과 답변 서비스(FAQ)를 제공하고 있다.²³⁾ 우선, 학교휴교 기간 동안 지시한 과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가정에서 수행되는 과제에

19) 출처 “독일 라인란트팔츠 주 홈페이지”, 2020년 4월 10일 접속, <https://add.rlp.de/de/themen/schule/corona/>

20) BOS(Berufsoberschule)는 중등II단계에 해당하며, 2-3년간 전일제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공학, 경제, 행정, 보건, 사회, 농업분야 등의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21) FOS(Fachoberschule)는 전문상급학교로 중등II단계에 해당하며, 11, 12학년 2년간 경제, 행정, 창작, 식품, 생명공학 등의 분야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22) HBF(Höhere Berufsfachschule)는 고등직업전문학교로 전일제로 운영되며 직업자격획득이나 전문대학교(Fachhochschule) 입학자격을 목적으로 한다.

23) 출처: “독일 라인란트팔츠 주 홈페이지”, 2020년 4월 10일 접속, <https://corona.rlp.de/de/themen/schulen-kitas/fragen-und-antworten/>

대해서 평가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보다는 장기간 온라인 성과를 평가하고 포괄적인 학교규정 및 학교법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 주 이유는 학생이 새로운 온라인 환경에서 본인의 부적응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교육접근 기회의 동등성에 생길 수 있는 의문에 대처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교사는 성적을 매길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피드백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해야만 했다.

다음으로, 직업학교가 일시적으로 휴교하면 어떻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교사들은 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조직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이메일, 전화, 우편 및 교육생에게 적합한 다른 형식으로 교육생에게 연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습 과제와 학습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많은 디지털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가 폐쇄되는 동안 각종 직업학교의 학생들이 실습을 완료하는 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재 해당 규정이 개정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영역의 실습훈련은 요양원등에서 환자와 노인을 동반하고 돌보는 업무를 도제훈련생들이 담당하므로 이 경우, 훈련기업은 훈련생의 OJT 장소에 대해 학교와 상의해야 하며 훈련기업체에서 규정을 준수하며 직업교육훈련생의 감염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다음은 라인란트 팔츠 주의 직업학교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직업학교 관련

번호	질문	답변
1	학교휴교 기간 동안 교육적인 목적 안에서 제시된 과제의 평가 조건은 어떠해야 하는가?	직업학교는 직업현실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역량을 개발하고자 하며 코로나19 시대에 특히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문제 해결 전략뿐만 아니라 디지털 작업 도구의 포괄적인 사용을 연습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직업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필수 성과 평가가 허용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들은 과제의 유형을 알아야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연습이 필요함 (공공직업학교규정(BBiSchulO) 31조 2항) 2. 학생들은 사전에 해당 작업과 평가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함(과도기학교규정(ÜSchO) 53조 4항) 3. 학습 그룹 내에 동등한 기회가 있어야 함,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디지털 작업에 동등하게 액세스해야함. 4. 성과는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그리고 외부의 도움 없이 실시될 수 있어야 함. 이러한 모든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직업학교에서 성과평가는 실시될 수 없음.

2	직업학교 휴교 동안 학생(도제)은 계속 훈련기업에 가야만 하는가?	그러함. 도제교육훈련생은 회사와 훈련계약을 맺고 회사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계약을 이행해야 함. 단, 인턴 등의 현장실습인 경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진행되지 않음. 이것은 일반 교육 및 직업 훈련에 모두 적용됨. 기술중등학교(Fachoberschule) 11학년 학생들을 위한 1년간의 인턴십은 부활절 휴가가 끝날 때까지 중단되었음.
3	도제학생은 학교가 휴교되는 동안 기업체훈련에 계속 참여해야 하나요?	훈련기업체는 직업학교에 훈련생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면제 여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 학교로부터 해당통지를 받음. 따라서 더 많은 시간동안 기업체에서 훈련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실제적인 OJT 훈련시간을 의미하는 경우, 차후에 규제가 생길 수 있음.
4	듀얼(이원화) 교육에서 졸업시험은 시행되는가?	듀얼(이원화) 교육의 최종 시험은 해당 경제주체에서 시행하는 시험으로 직업훈련이 끝날 때 훈련기업체가 소속된 상공회의소, 수공업협회는 훈련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는지 서면 및 실제 시험 부분으로 확인하게 됨. 최종 시험의 필기 부분과 실기시험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는 각 협회의 홈페이지에 문의하기 바람.

(출처: “독일 라인란트 팔츠 주 홈페이지”, 2020년 4월 10일 접속, <https://corona.rlp.de/de/themen/schulen-kitas/fragen-und-antworten/>)

IV. 나가며

이상과 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상황 속에서 독일에서는 직업교육과 훈련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응하여 다양한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정리하자면 우선, 실제적으로 독일의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상설주교육부장관회의(KMK)에서는 코로나19 발생시작 이후인 2020년 3월 13일부터 위기에 대응하여 합의된 규정을 신속히 발표하였다. 3월 25일에는 시험규정, 4월 2일 초등학교와 교직원대상자에 대한 대처규정을 마련하였고 4월 16일에는 학교재개를 준비하였으며 가장 최근인 4월 28일에는 학교수업에 대한 기본구상을 논의하였다. 연방정부와의 합의하에 주정부에서는 학생의 건강보호와 안전을 우선으로 신속하게 공동선언에 합의하고 이를 발표하였다.²⁴⁾

다음으로, 직업교육과 훈련을 둘러싸고 독일의 사회적 파트너들은 각자의 입장

24) 출처: “독일 상설주정부교육부장관회의”, 2020년 5월 1일 접속, <https://www.kmk.org/aktuelles/entscheidungen-der-kmk-in-der-corona-krise.html>

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문제 해결을 위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상공회의소는 「공공생활 제한에 대한 결정」 지침에 따라 2020년 여름시즌에 예정된 최종 시험을 연기하였고 수공업협회는 직업훈련회사가 위기상황에서도 원활히 직업 훈련을 유지해 나가도록 최선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재정정보조를 통해 긴급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은 코로나위기로 인해 수만 명의 직업교육훈련생을 잃지 않기 위한 보호 정책을 마련할 것을 호소하였다. 특히 노조 측은 미래세대의 '직업교육을 위한 보호막'을 개발할 것을 주장하였다.

세 번째, 각 주정부는 주별 상황 속에서 직업학교와 사업장이 처한 어려움을 파악하여 직업교육과정의 시험일정을 재조정하는 등 신경을 쓰고 있다. 라인란트 팔츠 주의 경우는 학생들이 온라인수업을 통해 부당한 평가를 당하지 않도록 수업지침을 마련하였고, 직업학교의 경우 휴교하더라도 회사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각 주정부는 훈련기업의 OJT 장소, 시간 등에 대해서 학교와 협의 하에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서 훈련회사가 소속된 상공회의소, 수공업협회와 시험일정도 조정하고 있다. 또한 훈련회사가 파산에 처한 경우 훈련계약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훈련생 보호조치를 취하며, 「감염방지법」에 따라 도제훈련이 수행되지 않으면 최대 6주간 훈련비 손실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갑자기 닥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독일의 직업교육 훈련을 둘러싸고 학교차원, 사회적 파트너 차원, 각 주정별로 매뉴얼을 만들고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은 학생의 안전과 보호를 가장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문화고권이라고 하는 기존의 원칙에 따라 교육은 주정부의 사안으로 주정부가 결정할 사안으로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당국은 신속한 합의를 통해 상황에 따른 변화에 대응해나가고 있다. 연방의 중앙정부와 논의하여 큰 틀에서 합의하되 16개 주정부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학교 휴교기간의 변경, 시험일정의 조정, 수업방식의 변화, 학생의 교육권 보호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위기 상황 하에서 동등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는지, 성적평가에 있어서 형평성에 치우침이 없는지 등을 점검하여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 또한 직업학교 휴교와 산업체의 폐업 등의 시시각각의 불안한 상황에서 산업체 훈련의 지속여부에 관해 학생들에게 신속히 매뉴얼을 알려줌으로써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훈련에 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직업훈련생이 위기상황 하에서도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고 지원하는 것은 젊은 세대가 미래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직업교육 훈련은 학교나 기업체에 맡김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이를 둘러싼 각계 사회적 파트너들의 협조가 더욱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각종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상공회의소, 수공업협회 등이 훈련생이 겪게 될 위기를 막고자 훈련기업에 긴급한 재정을 지원하고 부족한 훈련수당을 보조해야 하며 훈련생 수를 줄이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독일 노조 측에서 기업회생과 실업자 수 증가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훈련생의 부당한 해고나 단축근로로 인한 훈련보상의 어려움 등에 관심을 갖고 보호정책을 요구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독일의 코로나19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교휴교가 결정됨으로써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수업에 임했던 학생들에게 과제, 수업평가, 교육의 형평성과 관련된 지침을 신속히 마련하여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독일의 상설주교육부장관회의는 특히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가정별로 격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교육적 과제에 대한 평가의 형평성에 대해 여러 기준을 고려하였다. 평가가 시행되어야 할 경우, 학생들이 해당과제 및 평가기준에 대해 사전에 미리 숙지하고 충분히 연습을 하고 난 후 평가에 임하도록 하게 한다. 그 외에도 학생들이 사전에 해당 과제와 평가기준을 알고 있어야 하며, 온라인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보장이 있는지, 과제가 외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실시되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이러한 기준을 충족할 때에만 교육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각 주별로 상황과 지침 매뉴얼이 다르지만 교육의 주체인 학생이 새로운 환경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였다.

둘째, 직업훈련에 있어서 훈련생의 채용 프로세스가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일, 혹은 훈련과정 취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코로나19 감염확산과 발병 장기화로 집체교육훈련 대부분이 중단되거나 연기되었으며 실습위주의 양성훈련은 일제히 중단 또는 연기된 상황이다. 이를 통해 연간 교육훈련 일정이 변경되고 재개 일정이 불투명하며, 훈련참여 포기자 발생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나동만 외, 2020, p.10). 독일에서는 올해 예상하는 직업훈련생의 수가 확연히 축소될 것이라는 위기의식 하에 직업학교는 일시 휴교하였지만 훈련산업체의 훈련은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공업협회는 직업훈련산업체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우므로 긴급지원으로 훈련보조금을 지원한다. 상공회의소는 올해 여름시즌으로 예정된 도제자격시험을 연기하였고, 계속교육시험 일정도 조정하여 학생들이 자격시험을 준비하는데 큰 무리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노조에서는 위기에 처한 기업이 해고를 하지 않고 단축근무를 하는 동안에 직업교육훈련체결의 지속성이 보장되도록 경제부처를 설득하고 있는 중이다. 독일의 각계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훈련과정의 중단을 막기 위한 노력은 코로나19의 지속 여부와 경제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러한 합의를 통해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셋째, 직업훈련에 있어서 각 참여대상별로 매뉴얼을 마련해 신속하게 공지하고 있다. 라인란트 팔츠 주의 경우,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훈련축소, 훈련중단 및 자격시험일정 연기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알려주고 있다. 도제과정 참여여부, 직업학교 휴교 시 산업체 훈련의 지속여부, 직업훈련 중에 코로나19감염 시 처우와 보상, 훈련기업체의 파산 시 훈련생을 위한 다음단계로의 대처방안 등을 감염방지법에 따라 상세하게 적어 놓고 있다. 참여훈련생 뿐 아니라 직업훈련 참여기업을 위한 매뉴얼, 직업학교 교사 및 산업체 훈련교사들의 매뉴얼 등이 마련되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직업훈련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주정부, 상공회의소 등의 직능기관, 노조 등이 신속히 협의하여 지속가능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독일도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전염병 사태로 인해 연방정부, 주정부를 비롯하여 사회의 각계에서 문제해결에 대한 다각도의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중요한 것은 위기극복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공유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율성과 책임감을 다하면서 직업교육훈련에 있어서 미래세대의 교육을 위해 학교, 지역, 산업계, 사회적 파트너들이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과 경험이 추후의 사태에 대비하여 충실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성남, 김남희(2020).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직업계고 온라인 개학 대응 동향 및 주요 이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은숙(2012). 독일의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과 마이스터 양성, 어떻게 하고 있나, 한국 교육개발원 http://edzine.kedi.re.kr/article/world_01.jsp (2020.04.30.검색)
- 김기홍(2018).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 금강산
- 나동만 외(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산업 및 지역별 인적자원개발 현황과 대응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종성, 이수정(2020). 코로나19 대응 직업교육훈련 현황 및 지원방안: 일학습병행을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유진영(2017). 독일 직업교육에서 학생 직무능력평가 연구: 직무능력평가자와 상공 회의소의 역할을 중심으로, 직업과 자격연구, vol. 6, no.1, pp. 157-174.
- 유진영(2019). 산학일체형 도제학생의 성장경로 탐색: 독일 도제학생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동임 외(2014). 주요국 자격제도의 성과와 한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시우(2007). EU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II) - 독일, 한국법제연구원.
- “독일 라인란트팔츠 주 홈페이지”, 2020년 4월 10일 접속, <https://add.rlp.de/de/themen/schule/corona/>
- “독일 라인란트팔츠 주 홈페이지”, 2020년 4월 10일 접속, <https://corona.rlp.de/de/themen/schulen-kitas/fragen-und-antworten/>
- “독일상공회의소” 2020년 5월 3일 검색, <https://www.dihk.de/de/aktuelles-und-presse/presseinformationen/dihk-berufsschulen-und-bildungsstaetten-rasch-wieder-oeffnen-23176>
- “독일상공회의소”, 2020년 5월 3일 접속, <https://www.dihk.de/de/aktuelles-und-presse/presseinformationen/dihk-berufsschulen-und-bildungsstaetten-rasch-wieder-oeffnen-23176>
- “독일 상설주정부교육부장관회의”, 2020년 5월 1일 접속, <https://www.kmk.org/aktuelles/entscheidungen-der-kmk-in-der-corona-krise.html>
- “독일 상설주교육부장관회의” 2020년 5월 2일 접속, <https://www.kmk.org/presse/pressearchiv/mitteilung/hubig-kmk-uebermittelt-rahmenkonzept-an-regierung>

schefs-gesundheitsschutz-der-schulgemeinschaft-st.html

“독일 상설주교육부장관회의” 2020년 4월 17일 접속, <https://www.kmk.org/presse/pressearchiv/mitteilung/hubig-kmk-bereitet-schuloeffnungen-vor.html>

“독일 상설주교육부장관회의” 2020년 4월 29일 접속, <https://www.kmk.org/presse/pressearchiv/mitteilung/kulturpolitisches-spitzengespraech-laender-bund-und-kommunale-spitzenverbaende-einigen-sich-auf-hilfe.html>

“독일수공업협회”(4월 30일자), 2020년 5월 3일 접속, <https://www.zdh.de//presse/interviews-statements/wir-muessen-alles-tun-um-ausbildungsbetriebe-ueber-wasser-zu-halten/>

“독일연방정부”, 2020년 5월 3일 접속, <https://www.bundesregierung.de/resource/blob/975226/1744226/bcf47533c99dc84216eded8772e803d4/2020-04-15-beschluss-bund-laender-data.pdf?download=1>

“독일연방직업교육연구소(BIBB)” 2020년 5월 1일 접속, <https://www.bibb.de/de/121454.php>

“독일주간시사잡지FOCUS” 2020년 4월 13일, 4월 16일, 5월 11일 접속, https://www.focus.de/familie/eltern/schulausfall-wegen-der-krise-schulen-koennten-nach-ostern-fuer-aeltere-schueler-wieder-oeffnen_id_11704839.html

“독일타게스샤우”, 2020년 5월 1일 접속, <https://www.tagesschau.de/investigativ/swr/umfrage-handwerk-101.html>

“아우스빌둥”, 2020년 5월 1일 접속, <https://www.ausbildung.de/ratgeber/corona/#infos-unternehmen>

“아우스빌둥”, 2020년 4월 14일 접속 및 요약정리, <https://www.ausbildung.de/ratgeber/corona/>

“아우스빌둥관련”, 2020년 5월 1일 접속, <https://www.jmwiarda.de/2020/04/21/denkt-an-die-azubis>

“아우스빌둥플러스”, 2020년 5월 1일 접속, <https://www.aubi-plus.de/ausbildung/corona/>